

라우스 신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

1855 년경, 라우스 최초의 항구와 어장이 생겼을 때 주민은 라우스다케 산에 안전한 항해와 어장의 번영을 바라며 신사를 지었습니다. 시간이 흐르면서 어업은 번성했고 라우스초의 인구도 증가했습니다. 1887 년에는 지역의 인구 증가에 맞추어 더 좋은 환경으로 이전하게 되었고, 현재 장소로 옮겼습니다. 현재도 어업은 라우스초의 주요 산업이며 많은 주민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.

신들의 경계

짚으로 만든 금줄은 신사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. 라우스 신사에서는 본전에 장식된 금줄과 경내 거목에 감긴 금줄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금줄은 신이 깃든 물건과 장소를 나타냅니다. 신도(일본 전통 신앙)에서는 자연계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신들을 숭배합니다.

부적

라우스 신사에서는 다양한 부적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 학업 성취, 안전 기원, 교통안전, 만수무강 등의 부적이 있으며 운이 트이고 액을 막는 힘이 있다고 믿어집니다.

연중 행사

매년 7 월 첫날부터 3 일 동안 개최되는 축제에서는 현지 주민이 모여 라우스초의 어민을 보살피는 신에게 감사의 뜻을 올립니다. 주변에서는 미코시(신을 태운 가마)를 메고, 현지 단체가 춤을 선보입니다.